

# 계층적(AHP)분석을 통한 여성친화기업 인증지표 개발

배 지 연(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초빙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저출산의 사회적 배경에는 여성인력활용과 일·가정양립 제도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으나, 기업은 여전히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여성고용을 창출하고, 여성친화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와 같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여성친화기업이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받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남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의미하며(임희정외, 2009), 고용평등과 모성보호의 차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여성인력의 육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양인숙외, 2008). 여성친화기업을 양성·확산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여성친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내 실행중인 가족친화인증제도,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제도와 여성친화지수 등의 기존 평가지표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후, 전문가대상을 중심으로 AHP분석을 통해 인증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첫째, 국내의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목적에 맞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보았다. 둘째, 기존의 지표를 통해 추출한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보완하였다. 셋째, 검토된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된 우선순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인증지표를 통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인증지표는 5가지 영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전문가 21명이었으며, E-mail 서베이를 통해 조사하였다.

## 연구결과 및 제언

각 인증지표 항목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분석한 결과, 1계층에서 여성고용개선(0.342) > 직장가 가정의 양립지원(0.266) > 여성친화적 조직문화(0.205) > 모성보호(0.116) > 능력개발(0.0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친화기업의 인증에 있어서 여성고용개선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높이는 기업이 여성친화적 기업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장가 가정의 균형을 위해 기업내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최고경영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친화적 기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명확한 모형·모델제시, 근거 조례의 제정, 여성친화인증기업 컨설팅제도 마련, 관련 예산의 배정 등이 필요하겠다.

## 한계점

여성친화적기업 인증평가 제도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현실 적용성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의 환경적인 상황, 기업의 자체 특성,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모델,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